

[종합·해설]

# 한나라 박근혜·손학규 이어 고건·우리당도 '이명박 때리기'

### 고건 "깜짝소식 토목사업 미래 개척못해"

### 여당 "박정희 향수는 퇴행적 성형수술"

여야 대선주자들이 여론조사 지지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집중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내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주로 이 전 시장을 협공하는 모양새였지만 이제는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가세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전 시장에 대한 직접 공세를 시작했다. 견제의 타깃은 주로 이 전 시장이 대표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내륙문화' 구상에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정계권 복원 공약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미래와 경제' 세미나에서 "깜짝소식의 토목사업으로 미래와 경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 전 시장의 운하구상을 깜짝소스에 비유했다.

그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도 이 전 시장의 운하 구상에 대해 "글로벌 경제시대에 산업화시대의 토목국가

가 지도자가 할 일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국토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조건 새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된 기반시설과 설비를 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대치동 상필리제 갤러리 홀에서 열린 '서울상대 1.7로프' 초청 강연에서 "다음 국

가 지도자가 할 일은 경제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국토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조건 새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된 기반시설과 설비를 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로 가는 게 맞는 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가 11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국가적 과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달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은

# 고건 "10년내 1인당 소득 3만5천달러로"

### '미래와 경제' 세미나서 '10대 정책과제' 발표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자문조직인 '미래와 경제'는 13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미래와 경제의 10대 정책과제는 최근 고건 총리가 각종 강연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도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래와 경제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택, 교육, 노후보장, 북한문제 해결 등 5대 부문에 중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부문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향후 5년 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

를 달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문제에 대해선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공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활용해 건설사가 부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문에서는 대입전형기준 및 고교 교육프로그램, 고교유형 다양화 등 자율성 확대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체제 확립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와 경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와 경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 민주당 '독자생존론' 없던 일로

# "신당 창당에 당력 결집"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 및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내 일각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독자생존론'을 폐기하고 중도·개혁 세력의 결집을 통한 새로운 수권정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전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독자생존론은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중도·개혁 세력의 결집을 통한 새로운 수권정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서를 감안, 독자생존론을 들먹이는 것에도 당 차원에서 분명히 선을 긋기로 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강론'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외부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지도부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의원

총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 대회와 관련, 정계개편 국면에 당권 투쟁은 대내적으로 부적절하며 원내외 중진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 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후 지도부 개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의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정동영 의장도 불법경선자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와 경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 이명박 "여론조사 선두 낙선설은 옛말"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3일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충북대 초청강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1

년전에 여론조사가 1등인 주자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설(說)이 있다"는 지적에 "과거는 참고가 될지 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과 2007년은 시

간적으로는 5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변화의 속도는 과거의 20년과 같이 빨랐다"면서 "세상도 급변했고 정치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이 미래에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회창 후보가 1위를 할 때는 경쟁자가 없는 일종의 무투표 1위였지만 지금은 빅3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대를 리를 폈다.



13일 열린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차용한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게시물은 민병두 의원이 준비한 것으로 이인제 의원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박 전 대통령 이미지 차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 합격자 배출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88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1월 2일 개강

광주고시학원

227-8003  
971-9002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2기]

- 개강일시 : 2006. 12. 28(목) 09:30
- 모집기간 : 2006. 12. 5 ~ 28일까지
- 수업기간 : 2006. 12. 28 ~ 2007. 4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모집과정인원: 1단계과정 오전반, 오후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오전반(매주 화, 목) 09:30 ~ 12:30(3강좌)
- 저녁반(매주 화, 목) 18:40 ~ 21:30(3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회 감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감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062) 950-3584, 3585, HP: 011-614-4160

##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사설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민법	2007년 1월 3일
주택관리사	민법, 회계원리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2007년 1월 중순 (19:00 ~ 21:00)
정보통신설비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통신개론 4. 정보통신시스템 5. 전자계산기일반 및 설비기준	
취득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현관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도청연락처: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886, 777  
전서연락처: 3, 11, 27, 38, 55, 111, 118  
야생연락처: 2, 8, 11, 25, 28, 30, 118, 222, 518, 886

224-4560, 232-1088

## 공무원 합격 절호의 기회!!

# 교정직 특채

2007년 700여명 모집예상!!

영어없이 두과목만 응시 (교정개론, 형사소송법)

2006년 교정직특채 최종 1차모집의 합격률(취우) 49.6%를 향유할 기회입니다.

www.mdgosi.co.kr

1월 2일 개강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우 222-4560

## 공무원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가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서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행정직, 군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직직, 기술직

800명 모집

2007년 상반기

공무원 무료 합격설명회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12월 15일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대 약 234-0234

##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레텍공법은 핀란드에서 개발한 국제특허공법으로 30년된 기술의 노하우!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이젠 우레텍공법으로 가능합니다.

### 우레텍 공법의 특징

- 지내력500%까지 증강복원
- 작업공정 최단시간(수시간에서 수일)
- 기존시설물 이동없이 생활불편 최소화
- 물질 보증기간 10년

### 우레텍 공법의 적용분야

- 건축주거, 업무시설분야  
주택, 상가, 공동주택, 문화재, 성(城), 교건축 등 기초, 기둥, 바닥슬래브, 침하복원 및 강화
- 토목시설분야  
고속도로, 공항활주로, 철도, 교량, 항만, 지하철, 댐, 공공 시설물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건축산업시설분야  
공장바닥, 각종 물·유류탱크, 마트, 시달로, 대형매장, 대형물류 창고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누수분야(공통)  
지하공동구, 배관슬라브, 지하철, 터널, 댐, 농수로, 각종댐, 하수구 등 지수

우레텍코리아 광주·전남지사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통진엔지니어링(주) 가 하는 일 :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일반건설업, 구조검토, 지질조사

· 자세한 안내 및 문의 : ☎ 062-571-3001, 2 · FAX: 0551 · HP: 011-604-0287 · http://www.tongjin96.co.kr